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3년11월 제284호 http://cnmhs.net

아버지방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충기28회 조국근대화기수가 28청춘으로 다시 뭉쳤다"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12월 16일 대전 동구 호텔 선샤인에서 개최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 김진복)가 12월 16일(토요일) 저녁 6시 대전복합터미널 건너편 호텔 선샤인 3층 오아시스홀에서 개최된다.

"충기28회 조국근대화기수가 28청춘으로 다시 뭉쳤다"는 표어를 내걸고 충기인의 아름다운 전통인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멋지게 치르기 위해 28회 동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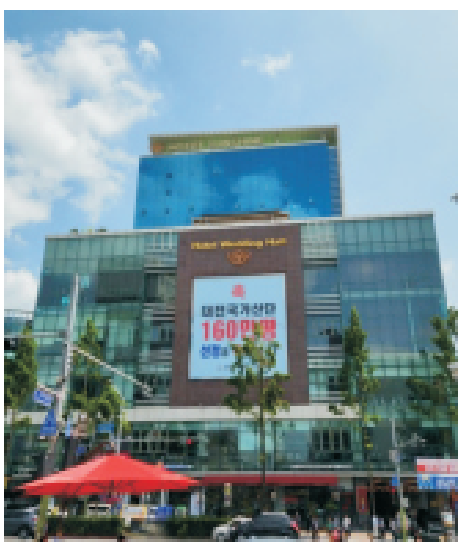
김진복 추진위원장은 "28회 친구들이 동문회 전체 조직이 없고 소모임만 있어 지난 10월의 체육대회를 비롯해 아웃사이더로 외로웠다"며 "지난 달까지만 해도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였는데. 올해가 지나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30주년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하던 차에 정관성 총동문회장님과 이용주 총동문회 조직국장 등 집행부의 도움으로 28회 동문들의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동기들끼리 한 명 한 명 모이다보니 60여 명에 이르러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또한 "10대 사춘기 시절에 만난 친구들이 어느새 반백의 나이인 오십세에 이르러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지천명의 의미가 새삼스럽다"며 "전국에 있는 28회 친구들이 12월 16일 모두 모여 맘껏 회포를 풀자"고 제의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후배님들의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개최에 감사한다"며 "우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충기가 필연이 되어 후배님들의 안식처가 되어 뜨거운 동문애를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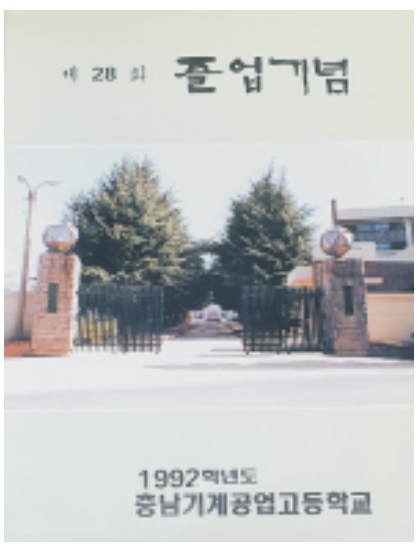
졸업30주년기념행사는 충기동문회의 전통이다.(사진은 24회동문 행사모습)

28회 동문들의 행사 초대장



대전 동구 호텔 선샤인 전경

학창시절 수학여행 모습



추억의 28회 졸업앨범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후배님들의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개최에 감사한다"며 "우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충기가 필연이 되어 후배님들의 안식처가 되어 뜨거운 동문애를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28회 동문들의 졸업30주년기념행사는 김진복 추진위원장과 안성찬, 장상구, 강문식, 윤수원, 정희철, 유경식, 김송환, 정대영, 김진태, 정제풍, 안창고, 도중관, 주남규, 오유진, 김기욱, 표승규, 김동현, 양주석, 서정문, 김용상, 오철순, 김서호, 이흥기, 박성철, 송영민 추진위원들이 합심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8회 동문들은 "비롯 뒤늦은 행사 개최이지만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개최 안내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28회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동문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12월 16일(토요일) 저녁 6시
*장 소 : 호텔 선샤인 3층 오아시스홀(대전복합터미널 앞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00)
*추진위원회 : ◈ 추진위원장 = 김진복 (010-6407-6621) ◈ 추 진 위 원 = 안성찬, 장상구, 강문식, 윤수원, 정희철, 유경식, 김송환, 정대영, 김진태, 정제풍, 안창고, 도중관, 주남규, 오유진, 김기욱, 표승규, 김동현, 양주석, 서정문, 김용상, 오철순, 김서호, 이흥기, 박성철, 송영민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김 진 복

“전국 지역 최다동문 모임답게 내년부터 매월 모임 갖기로”

서울동문회 2023년 송년회 신임 회장에 육정관 동문 추대

서울 동문들은 11월 24일 사당역 소재 참치집에서 송년회를 갖고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해를 돌아보며 갑진년 용띠 새해의 희망과 설렘에 관한 덕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끈끈한 동문애를 나눴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초대 윤봉중(12회) 회장의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육정관(15회) 동문이 만장일치 추대로 취임하였다. 신임 총무국장으로는 박종선(22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서울동문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격월로 하던 모임을 내년부터는 매월 하기로 하였다. 홀수 달은 평일에 하고 짝수 달은 주말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서울 지역에는 많은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700여 통의 동문회보도 발송되고 있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는 서울동문회다. 관망하는 수많은 동문들은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충기인이다. 여기가 수도 서울이다”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내는 서울동문회는 웅비할 것이다. 뿌리깊은 거목으로 자리잡아 가며 거듭 성장할 것이다.

*서울동문회 연락처 =
회장 육정관(15회. 010-3779-6923)
총무 박종선(22회. 010-5851-8234)

서울동문들이 송년회를 마치고 “서울동문회 최고”를 외치고 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춘향가 등 노래로 흥 돋우며 행복감에 흠뻑 빠지다”

안양동문회 송년회 선물 주고받으며 동문회 발전과 새해 기대

안양동문회(회장 진한종)는 11월 21일(화) 저녁 7시 안양의 최고급 뷔페식당 평촌마벨리에에서 2023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양동문회에서 가장 높은 기수이며 초대 회장인 정인덕(6회) 선배와 7회 김영수 선배 등 19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안양동문회는 정기모임 횟수를 거듭할수록 참석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권혁주(17회), 차용대(21회), 김태열(29회) 동문이 합류하여 동문회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 진한종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회는 한지공예 대표인 홍일점 이현숙(9회) 동문의 즉석 노래(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분위기를 잡고 우리소리가 좋아 판소리를 공부했다는 소리꾼 조한규(9회) 동문의 춘향가 중에서 어사또 거지꼴을 보고 한탄하는 장면을 노래해 흥을 돋우며 즐거움을 더했고, 김영수(7회) 동문의 노래로 흥겨움은 절정에 이르러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한편 안양동문회는 끈끈한 동문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1월 새 회장단이 구성되면서 설날을 맞이해 양말세트를 선물하였고, 「조가네 갑오징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직전회장 조현기(15회) 대표가 외식상품권 1매씩 을 증정하였으며, 추석에는 9회 동기 4명(원종국, 조한규, 이현숙, 진한종)이 참석자 전원에게 양반김 세트를 선물하여 훈훈함을 더한 바 있다.

안양 동문들이 ‘안양동문회 파이팅 “을 외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특히 이날 조용덕(18회, 평택지속가능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 명지대 겸임교수) 동문이 평택갑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동문들이 지역연고 등을 찾아 당선을 돕기로 하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회원 모두 동문회의 발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 채경준 안양동문회 총무(26회) –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길”

전기과동문회 4분기 이사회 개최

전기과동문회(회장 김희곤)는 11월 23일 저녁 서구 변동 대선칼국수식당에서 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 개최의 건, 2023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예산 승인의 건 등을 통과하고 기타 안건을 토의 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3년 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12월 15일(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마리드엘 1층(구VIP)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희곤 회장은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 하는 송년모임에 선후배님들의 많은 참여로 화합과 우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대성 전기과동문회 총무 –

제49회 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안내

2023년 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이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마리드엘 1층(구VIP) 대전시 서구 만년로 69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전기과동문회장 김 희 곤

“한시도 잊을 수 없던 모교시절이 너무너무 그립다”

전 복싱세계챔피언 염동균(5회) 동문을 부천에서 만나다

식당 앞에서 염동균 선배와 김창관 동문이 “충기파이팅”을 외쳤다.

염동균 선배(오른쪽)와 사모님(가운데)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

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계 복싱 챔피언 염동균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자랑스런 충남기계공고 제5회 동문 염동균 동문을 김창관(21회. 전 대전서구의회 의장) 동문이 우연히 들른 부천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장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음식이 너무 맛나고 친절하길래 “대전서 왔는데 운이 좋네요.” 했더니 주인장이 “우리 바깥 양반도 대전 사람이다. 염동균이다”라고 하였다. 염동균 동문의 사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먹자골목 유황돼지 소금구이집)에 들른 것이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염동균 선배께 전화를 드렸고 충기 동문이라고 엄청 반가워하며 동문모임 때 꼭 불러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잠시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울컥하며 울려오는 목소리에서 찐한 동문애를 느꼈다. 염 선배님은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모교시절이 너무너무 그립다고 하신다. 11월 3일 그날은 김창관 동문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한 날이기도 하다. 그날 최회재(5회) 염동균(5회) 동문 소식에 이어 김창관(21회) 동문의 경사까지 오늘은 충남기계공고 동문을 위한 하루였다. 정말 기쁜 날이다.

1950년 충북 옥천 태생의 염동균 동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전 한밭체육관에 입관하여 전국선수권과 전국체전에서 2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전적 60전 53승(29KO) 7패의 전적을 뒤로 하고 1970년 3월 프로에 데뷔한 염동균은 아마추어 때부터 강력한 양 훅

을 주 무기로 활약한 권투선수였다. 1971년 10월 프로에 대뷔한 지 1년 7개월 만에 국내 JR 페더급 정상에 오른다. 이때부터 염동균은 4년 6개월간 33승 (17KO) 무패를 기록했다. 1976년 11월 24일 일본의 로열 고바야시를 물리치고 WBC 슈퍼밴텀급 챔피언 등극하여 한국선수로는 첫 WBC 챔피언이 됐다. 프로 통산 전적 66전 54승(21KO) 5패 7무의 화려한 전적을 쌓고 은퇴한 후

2010년 10월 1일 한국권투인협회(KBI) 제5대 회장에 취임하며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던 염동균 동문은 이제 70대 노신사로 모교와 동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년 제33회 총동문체육대회에는 염 선배님을 뵙고 싶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목포 고하도에서 즐거운 추억여행

기성동문회 추계야유회 가족동반 35명 참석

기성동문회(회장 안주현)는 11월 5일 전남 목표 고하도로 가을 야유회를 떠났다. 기성동문회는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부부동반으로 추억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추계야유회에도 1회 송주영 선배님과 송석구 선배님 부부를 비롯해 모두 35명의 대 인원이 버스 한 대에 몸을 싣고 목포 고하도의 절경을 감상하고 횟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곡차를 나누며 한 해의 회포를 풀었다.

안주현 회장은 “동문을 사랑하고 화합하는 기성동문회의 전통이 이어져 기쁘다”며 “새해에도 건강하시어 더 좋은 곳으로 추억 여행을 가자”고 덕담했다.

– 김정훈 기성동문회 홍보(22회) –

18회 졸업40주년기념행사 12월 1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기사 12월호에 게재)

“마이다스의 손” 교직 38년 부임교 마다 기적 만들어

최회재(5회) 동문 70대에 공직 맡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 실증

최회재(5회) 동문이 경기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제4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에는 3개의 청소년수련관, 3개의 청소년 문화의집, 3개의 청소년 상담,복지, 진로센터, 3개의 청소년자유공간 등 총 12개의 기관 단체를 두고 있는 명실공히 고양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교육의 메카이고 공익 재단이다.

최회재 동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파주 문산 파주고,동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평택기계공고를 거쳐 1995년 오마중학교(일산 소재)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인연을 맺었다.

고양 주엽고 교감을 거쳐 저동고·백마고·김포 풍무고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 당시 최동문은 누구는 5년도 하기 어렵다는 교장을 무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이나 봉직했으니 그 무던함과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선배님을 뵈면 학자보다는 대기업 오너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흔히 관료가 가진 고정관념이 없었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역동성은 어떤 변화에도 철저히 준비되었고 부임교마다 그가 일궈낸 ’마이다스의 손’의 기적은 차고 넘쳐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최 선배님은 “생각이 행동이 된다”고 말했다. 1950년 전쟁둥이로 태어나 고달프고 모진 세월을 살아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자화상이 되어 그대로 투영 된다. 칠십 중반의 연세에도 50대 청년의 꿀피부를 가진 비결은 그 생각이 얼마나 순수하고 밝았는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최 선배님은 또한 효(孝)를 실천하여 주위에 모범을 보였다. 부모님 병수발을 들면서 10년간을 모시고 함께 하셨다. 결손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정학직전의 제자의 선처를 위해 학교를 쫓아가서 도움을 주셨고 감화되어 지금은 떳떳한 모범 청년으로 성장시켰다. 교육현장에서 최연소, 최장수 교장이라는 수식어를 달았고 퇴임 후 한국미래청소년환경단을 조직해서 78개 학교 1200명의 학생들을 회원으로 두고 환경, 봉사, 인성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받은 수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500평의 텃밭을 학생들과 함께 가꾸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배달과 김장배추를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칠순이 넘어 74세에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수식어를 달기까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허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다. 최 선배님의 인생2모작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11월 3일 고양시청에서 이동환 시장(왼쪽)이 최회재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창관 동문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김창관 동문(21회. 전 대전서구의회 의장)이 11월 3일 시대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국회의사당에서 수상했다. 김창관 동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태어나 서대전초등학교, 한밭중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한밭대학교 산업공학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 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2년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하였지만, 재기를 노리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며”

충심회 화합 위한 가을야유회 개최

충심회(회장 박영호, 9회)는 가을 단풍이 자태를 뽐내는 11월 11일(토)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경남 통영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날씨도 화창하여 회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담소하며 버스에 올라 차창 밖으로 가을 경치를 만끽하며 성웅 이순신 장군의 얼이 새겨진 전적지 통영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2023년 가을 야유회 일정은 오전에는 통영의 전체 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과, 오후에는 유람선 관광으로 이순신 장군 전적지인 하루방바위/복바위/소혈도를 거쳐 제승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점심은 리조트 횟집에서 회포를 풀면서 즐거운 자리를 가졌으며, 박영호 충심회 회장은 건배사에서 “배지밀(배려하고, 지원하고, 밀어주자)”이라는 구호를 외치자, 김학만(18회) 회원은 그동안 선배님들이 베풀어주신 노고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례를 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응수(1회) 회원은 건배사에서 충심회 회원들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충심회 찬찬찬(활기찬, 희망찬, 가득찬) 건배사를 외치는 등 즐거움으로 가득 찬 행복한 점심을 들었다.

오후 일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성공적 승전으로 이끈 전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유람선을 타고 하루방바위/복바위/소혈도를 거쳐 제승당을 방문하였다.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하에 3도수군통사가 위치하던 곳이기도 하지만, 한산도 대첩이 이루어진 곳으로 행주대첩 및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무사에서는 박영호 회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였으며, 당시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 정성태 충심회 총무 –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생사고락 같이 한 친구야, 고맙다!"

〈24회 동기들의 찐한 우정 이야기〉 결혼식장에 동문들 대거 참석

24회 동문들이 지난 총동문체육대회 때 23회 동문들(뒷쪽)과 함께 했다.

안영호 동문의 자녀결혼식 때 동문들이 보낸 축하 화환.

지난 10월에 열린 32회 총동문체육대회에서 24회 동문들은 운동장 한 켠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단체복을 맞춰 입고 부부동반으로 100 여 명이나 참석하였다. 인삼 막걸리며 인삼 튀김의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커다란 불판에서는 끊임없이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참 많이도 집어먹었다.

올해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역대 체육대회 시에도 24회는 항상 푸짐하였다. 도대체 이런 응집력은 어디에서 기인되었을까? 11월 12일은 마침 안영호(직전 24회동문회장,영신F&S대표) 동문의 자녀 혼사가 있는 청주소재 아름다운웨딩홀을 찾았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라고 했던가?" 예식장은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즐비한 축하 화환을 이렇게 많이 본 적도 없었다. 안영호 동문이 정말 건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영호 동문은 체육대회 때마다 200만원씩 기증 할 정도로 큰 정성을 보내 주었다. 동문사랑의 그 고마움을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전종현 고문은 화환을 보내 축하해 주었다.

"체육대회 때는 못 갔어도 영호 딸내미 결혼식만큼은 와야죠"하며 포천(김성호)에서 철원(장경진)에서 달려온 친구들을 보니 멋진 후배님들의 찐한 우정에 감동이다. 참 많은 동기들이 예식장을 찾았다.

"체육대회 때보다 더 많이 온 거 같아요"이런 덕담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서로 힘을 얻고 웃고 떠들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동행을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모임이 잘 되냐구요?"

"저희들은 20년 전부터 70~80명 이상 꾸준히 모임을 해왔어요. 제 아들 딸 돌잔치에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친구들이 왔지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들이거든요"

현재 김윤환 회장, 안준석 총무를 중심으로 분기탱천하는 24회 동문들의 비상은 끝이 없었다. 새로운 친구들이 속속 모임에 편승하고 있음은 그들만이 가진 놀라운 포용력에 있었다.

체육대회 때 실제로 회장, 총무를 인터뷰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든 친구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차분하게 솔선수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누가 회장 총무를 맡아도 모임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정말 커다란 놀라움이었다. 선진국 네덜란드에는 협동조합이 1만개가 넘는데 협동조합법이 없다는 말이 상기되었다.

24회 동문들의 아름다운 우정에 경의를 표하며 대전에서 청주까지 데려다준 24회 살림꾼 이용주(총동문회 조직국장,현대자동차 판매업) 후배가 고맙기만 하다.

24회 동문들은 충기총동문회에서 가장 생생한 활력소가 되고 있어 믿음직하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즐거운 라운딩 후 저녁만찬 담소

충기19회골프회 제7회 대회 개최

충기19회골프회(회장 성기필, 총무 노기종)는 11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 히든밸리CC 에서 제7회 친선골프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6개 팀 24명이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키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에서 참석하여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저녁만찬은 강인성 친구가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 주어 술도 한 잔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노기종 19회골프회 총무 –

5개 소모임 활성화 연2회 정기모임

21회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전기과21회동문회 정기총회가 11월 11일 유성워낭명가식당에서 개최되어 회칙 개정, 결산 승인, 예산안심의를 가지고 차기 임원을 선출하였다. 5개의 소모임이 활성화된 전기과 21회 동창들은 전기과동문회를 발족하고 연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 오원석 친구의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으로 강기환(공학박사)친구가 추대되었다. 제2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강기환 ▲수석부회장:강전갑 ▲부회장:심은용, 이승하 ▲감사:오원석 ▲총무:김광수.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무조건 1년이며 감사는 전임회장이 맡고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연회비는 5만원이며 납부기간은 1월말로 10만원 2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기모임 시 개별적인 후원으로 충족되기에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 김광수 전기과21회동문회 총무–

모교 교정에 한국형 최신 틸딩열차 설치 명소로 떠올라

철도차량과 학습 기술연마로 철도 인재 교육에 큰 성과 기대

모교 본관에서 바라본 틸딩열차 모습.

동쪽으로 바라본 열차가 멋있다.

후문 쪽에서 바라보니 충기역 같다.

열차 후면에서 바라본 최신형 열차

모교 후문 옆 교정에 최신형 틸팅열차가 최근 설치되었다. 모교는 최근 철도노선의 급격한 확대와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철도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기반으로 철도차량과 2개 반을 개설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기계공업고는 국내 철도산업환경에 적합한 학습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국내 철도기관을 통한 철도차량 및 장치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2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하여 한국형 틸팅열차의 기증이 결정되었다. 한국형 틸팅열차는 KTX 고속열차와 달리 곡선에서도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200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번에 기증된 틸팅열차는 기관차 차량, 장치, 부품 등을 활용한 실물 학습설비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을 3D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별도의 디지털 학습설비를 개발하여, 디지털 세대(Z세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이 가능한 미래직업교육센터로 거듭날 것이다.

모교 관계자는 “기증된 한국형 틸팅열차의 기관차, 각종 장치 및 부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도산업의 요구 및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의 교육훈련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및 체험설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을 이어 전국펜싱 단체전 은메달

모교 펜싱부 결승전서 아깝게 져

모교 펜싱부는 11월 1일(수)부터 11월 6일(월)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 중·고 펜싱연맹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모교팀은 16강전에서 하길고등학교(경기도)를 45:33으로 이기며 기분 좋게 출발한 후 8강전에서 전북체육고등학교를 45:40으로 제압하였다. 4강전에서는 단체전 전국 강자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기였지만 단합된 힘을 발휘하며 45:41로 승리하였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인천체육고등학교에게는 막판 뒷심 부족으로 43:45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3월에 개최된 제35회 한국중·고 펜싱연맹 전국 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3위(동), 단체전 3위(동)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연거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현재 펜싱부는 1학년 4명, 2학년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1학년이 주축인 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끈끈한 팀워크, 뜨거운 열정으로 뭉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개인전에서도 2학년 주장인 송제헌, 1학년 김동원 두 명 모두 8강에 진입하는 성적을 내기도 하였다. 박인규 모교 교장은 “펜싱부 학생들이 펜싱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명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걸맞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본교는 물론 대전을 대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라.”며 이번 대회 입상을 격려하였다.

– 모교 기사 제공 –

수입 현황

기간 : 2023년 10월 26일~2023년 11월 28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백운길	10,000	기	13	마평춘	5,000	전	18	마수용	1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상	1	오응수	10,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광	3	서한수	20,000	기	13	이형기	2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24	안영호	10,000	기	39	김동연(10월)	1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24	정상복	10,000	기	39	김동연	10,000
방	4	송석범	10,000	기	14	백채준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5	강신철	10,000	금형	52	이승원	10,000
방	7	김민주	1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20	여명찬	10,000	전	25	김종필	10,000	기	53	이영욱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전	20	윤성덕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연락요망		김종필	10,000
기	8	신도성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화	8	이원승	10,000	기	15	서경원	2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전	8	임헌표	1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21	문길수	10,000	기	27	송형태	1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21	박원종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기	16	윤석길(10월)	2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전	9	임세환이사	1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30	이정근(10월)	10,000				
방	9	진한종	1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기	30	이정근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기	16	조성서	1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전	10	오창균(10월)	1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기	31	김태용	10,000				
전	10	오창균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기	31	남지현	10,000				
자	10	이경세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기	22	김갑수	10,000	기	31	오선균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22	김양훈	10,000	기	32	장진학(10월)	10,000				
전	11	박인삼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22	김준수	10,000	기	32	장진학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기	17	박기용(10월)	10,000	전	22	박종선	10,000	배관	33	김명수	10,000				
전	11	이진권(10월)	10,000	기	17	박기용	10,000	기	22	이보윤	10,000	기	33	오규성	10,000				
전	11	이진권	1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기	17	백준현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12	권석환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기	33	전우창	10,000				
기	12	김기섭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기	33	조승현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기	12	라기원	1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23	이주한	10,000	전	34	김용정(10월)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23	임정호	10,000	전	34	김용정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17	이상봉	10,000	전	23	최상현	10,000	전	34	김윤섭	10,000				
기	12	정찬목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기	23	한병수	10,000	전	34	박완득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금	17	정찬문	10,000	기	24	김성기	10,000	전	34	최병관(10월)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기	17	최현주	10,000	전	24	김용석	20,000	전	34	최병관	1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전	4	이준기	120,000
자	8	오정섭	50,000
자	9	김선영	20,000
광	10	이기성	50,000
기	11	조준영	20,000
기	12	송문영	20,000
기	14	김근식	50,000
기	14	박천관	100,000
설비	51	한찬혁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21	진춘식	100,000
기	39	김동연	50,000

제32회 체육대회 성금

방	12	조우찬	100,000
단체	23회	동문회	1,100,000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도리 하고 다녀라"

건강 칼럼

감기를 예방하는 선제적 방법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추운 겨울철에 이불을 차버리고 자는 아들이 감기에 걸릴까 노심초사하시며 이불을 잘 덮어 주셨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오지만 몸에 한기가 들어도 여지없이 걸리기 때문이다. 감기는 일로 인해 과로 하면 여지없이 면역력이 약화되어 침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간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지금은 사람들 대다수가 맨 얼굴로 다니는데, 최근 독감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여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후 아내와 함께 감기기운을 느꼈다. 약간의 콧물이 나오며 목이 칼칼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쌍화탕과 기초 감기약을 먹은 후 평상시처럼 잘 때 가벼운 목도리를 하며 자고, 숨쉬기 쉬운 마스크를 입에 쓰고 잠을 잤다. 그리고 목 뒤의 풍혈을 손으로 잘 마사지해 주었다. 감기 초기에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것은 오래 전에 어느 약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환절기나 겨울철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추울수록 옷을 껴입어야 하는데 모자나 목도리는 커녕 옷마저 허술하게 입어 찬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한다.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만 잘 감싸기만 해도 감기예방에 효과가 좋다. 몸이 차가워지면 바람 들은 무처럼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만병의 근원인 감기에 걸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감기 예방법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온도:20~22?, 습도:50~60%)를 적절히 유지하고,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비타민C 섭취, 양치질하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590만 4247명의 환자가 감기로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감기의 원인은 거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감기약이라 부르는 것은 콧물을 멈추게 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가래를 삭이는데 도움이 되는 진해 거담제 등으로 감기를 직접 치료하기 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

감기에 걸리면 완화 효능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한의학자들이 추천하는 감기에 좋은 음식으로 ◆모과차(만성화된 기침에 효과) ◆콩나물국(몸의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 감기 다스리는 효과) ◆더덕 무침,구이(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위장과 폐 기능 강화) ◆무국(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고 혈액을 깨끗이 하며 목의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빠른 효과) ◆배(한의학에서 배는 만성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적이며 몸의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감기를 예방하고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건기 등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때는 가능한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씻는 것도 감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감기가 우습게 보는 사람은 제 몸을 허술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한화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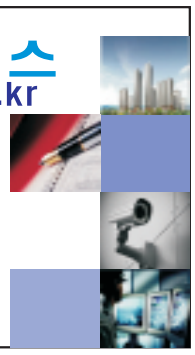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매연저감장치
DPF 건식클리닝
월드DPF클리닝 수리전문

세계특허 NFHTP 건식버닝 방식

대표 이남희 (9회)
010-5438-63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1
대표전화 1544-0572
FAX. (042) 934-2011
※ 토. 일요일에 예약가능 ※

(주)필 엔 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SH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 : (042) 670-7877, 7233
FAX : (042) 670-7876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

meritz 메리츠화재

걱정은 메리츠화재가 대신할게요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매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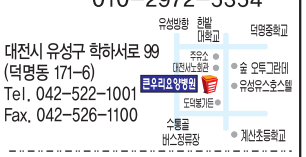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